

객관적으로

자유기고가 김춘경

02)594-2264 abbia1004@hanmail.net

대저 객관(客觀)은 자기와의 관계를 떠나 사물을 보는 관찰, 곧 주관에 대립되는 말이다. 주관의 작용과 떨어져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원래는 사물, 보이는 물건의 뜻이다. 칸트(Kant) 이후 외계의 일부분으로서, 내계(內界)에 대한 현실계의 의미로 사용된다. 오늘날에는 관념적 객관도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주체에 대한 경우 객체(object)라 한다.

그래서 객관성(客觀性:objectivity)이란 주관(主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객관적인 성질이다. 즉 각 개인의 주관에 기울어지지 않고, 보편적으로 타당한 성질이다.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타당성을 말하며, 객관성이 없는 인식이란 단순한 주관의 관념(觀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적(有意的) 또는 무의적(無意的)인 신체활동의 변화와 결과를 관찰 또는 실험하여 정신작용을 유추(類推)하는 방법이 객관법(客觀法:objective method)이다. 독일어의 레흐트(Recht)나 프랑스어의 드르와(droit)는 권리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객관적>이라는 형용사로 구별한다.

감각(感覺)·의지(意志)·사유(思惟) 등 모든 주관과 주체의 작용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객관객체라 한다. 주관이나 주체의 상대되는 말로서, 인식론적 문제에서는 객관과 주관, 실천적 문제에서는 객체와 주체가 통례적으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객관묘사(描寫)는 창작할 때 대상(對象)에 대하여 자기의 주관을 가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충실히 묘사하는 수법이다. 이것은 주로 자연주의 문학에서 취한 기법이다.

자연주의(自然主義:naturalism)란 철학에서 자연을 근본적 원리를 삼고, 모든 현상을 그의 소산(所産)이나 소위(所爲)로 들리는 일이고, 교육학에서는 아동의 천성을 자연 그대로 발달시키려는 주의를 말한다. 그리고 윤리학에서는 도덕의 기준을 본능과 충동 등과 같은 자연적 소질에다 두는 일이고, 문학에서의 자연주의는 19세기 말엽에 자연과학의 영향으로 일어난 문예사조를 말한다. 즉 이상화(理想化)하지 않고 인간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문예상의 주의이다.

객관적 정신은 헤겔(Hegel)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

어이다. 정신을 주관적·객관적·절대적으로 3분하여 주관적 정신은 관념론적으로 파악된 개인심리를, 객관적 정신은 법·도덕·인류의 3형태를 근거로 설정한 소유권에서 국가까지 취급하였다. 딜타이(Dilthey)는 생(生)의 객관화와 체험의 표현전체를 객관적 정신으로 취급하였다.

관념론의 일종으로 객관적 관념론이 있는데, 절대(絶對) 관념론이라고도 한다. 관념론은 정신을 세계의 기초에 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신을 인간의 의식, 즉 주관으로서의 의식을 초월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신에 두고 있다. 곧 신이나 절대정신으로 하여 여기에 의한 세계관을 세우는 철학을 말하며 그 대표자는 변증법(辨證法)으로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헤겔(G.W.F.Hegel:1770~1831)이다. 변증법(dialectics)은 헤겔이 주창한 철학의 한 방법인데, 지각이나 경험에 따르지 않고 개념을 분석하여 사리를 연구하는 법이다.

객관적 비평(批評)은 객관적인 일정한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여 놓고 그 표준에 따라 행하는 비평을 말한다. 이를 일명 표준비평이라고도 한다. 비평에는 작품에 대한 순감상적(純鑑賞的)인 비평, 분석적인 비평, 판단적인 비평 등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어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작품가치를 판단하는 비평의 한 방법이다.

객관주의(客觀主義:objectivism)는 실재나 진리는 주관과의 독립하여 존재한다고 여기는 주의로 주관주의와 대립된다. 즉 실험·관찰·연구·분석·종합·통계 등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험

론(經驗論: empiricism)이다. 진리는 주관적 의식 또는 인간적 실천의 매개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말한다.

근대적인 객관주의가 성립된 것은 세계관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믿어진다. 칸트(Kant)는 선형적(先驗的)인 의식 외에 불가지(不可知: unknownableness)의 물체 자체를 상상하고, 피히테(Fichte)는 자아에 의한 비아(非我:non-ego)의 정설을 주장하여 물체 그 자체를 제외하였다.

셸링(Schelling)은 더욱 주관과 객관의 절대적 차(絶對的差)를 주장하였으며, 헤겔(Hegel)은 자각적 자기운동을 주관으로 하는 <절대정신>의 변증법적 전개(辨證法的展開)에 의하였다. 그리하여 자연 또는 역사의 일체를 설명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주관의 개념을 명확하게 확정시켰다.

이것은 자연이나 심리현상 뿐 아니라 사회나 사회현상도 전부 객관적이라 불렀고 또한 객관으로서 고찰할 수 있는 기초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세기 중엽 이후 객관의 고찰로서의 근대 과학은 여러 분야에서 진전할 수 있는 진리를 보증하게 되었고, 확고한 근대적인 객관주의가 성립되었다. 개인주의적 편견(偏見)이나 독단(獨斷)을 떠나서 경험의 자료가 되는 수학이나 통계학을 이용해서 객관을 규정하여 확정하지는 것으로 실증주의(實證主義)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실증주의(positivism)는 경험적 사실을 기초 삼아서 현실을 해석하려는 철학으로, 프랑스의 콩트(A.Comte)가 제창하였다. 그러나 객관적 심리학은

심리(心理)를 다른 자연과학과 같이 순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이다. 정신생활을 의식하는 현상에 한정(限定)하는 주관적 심리학에 대하여 정신생활을 외부로부터 관찰하는 점에 있어서 실험(實驗)심리학과 같은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데카르트(R.Descartes)에서 시작한 프랑스 유물론(唯物論)의 전통과 19세기 말에서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생물학에 있어서의 객관주의 동향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전개된 행동심리학이나 프랑스의 피에롱(H.Pieron)의 행위(行爲) 심리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노동이나 생산비 등의 넓은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가지고 가치와 가격을 설명하려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객관적 가치설(客觀的 價値說)은 스미스(Smith)·리카르도(Ricardo)·마르크스(Marx) 등으로 대표된다. 스미스는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구분하고, 전자를 어떤 재화의 효용(效用), 후자를 다른 재화에 대한 구매력(購買力)이라고 설정하였다.

또 물과 다이아몬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환가치가 사용가치에 비례하지 않을 때 교환가치에 대한 설명을 사용가치 이외의 것, 즉 생산비 등에서 구하였다. 또한 물품끼리의 교환은 그 교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량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 노동가치설(勞動價値說:labor value theory)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즉 노동의 양(量)으로써 상품의 가치가 규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품의 가치는 그 생산을 위하여 소비

된 노동량, 곧 노동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는 학설이다. 여기에서 노동량은 투하노동량인 동시에 지배노동량인 것을 말한다. 투하노동량은 어떤 재화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량이고, 지배노동량은 교환에 의하여 어떤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노동량을 말한다.

영국의 리카르도(D.Ricardo:1772~1823)는 노동에서 가치척도를 구함으로써 스미스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즉 투하노동에 등가(等價)의 기준을 구하고, 그 위에 모든 경제관계를 정립시키려는 입장이다. 여기서 등가(Requivalents)란 유가증권(有價證券)의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가격 곧 시가(市價)와 액면가격(額面價格)의 같은 것을 이른다.

스미스나 리카르도는 현실의 교환비례를 단순히 수요(需用)작용으로서 설명한데 지나지 않는다. 공급(需給)이 합치했을 경우에 성립되어야 할 자연가격의 궁극적인 근거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풀이된다. 하지만, 가치와 자연가격을 스미스와 같이 기계적으로 구별하든가, 혹은 리카르도와 같이 직접적으로 동일시(同一視)한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고전학파의 모순을 극복한 것은 마르크스였다. 그는 가치의 척도뿐 아니라, 가치의 실체와 형태 및 본질을 명백히 규명하였다. 즉 가치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양분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상품의 한 요인으로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요인인 사용가치에 대립하고 있으며, 투하노동뿐 아니라 일반적인 노동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그는 역설하였다.

따라서 가치의 크기는 노동의 양(量), 즉 시간에

의하여 헤아려지게 되는데, 이때 개별적 노동시간은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으로 환원되어진다. 그리하여 결국 가치의 실체에 사회적 성격을 가미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어쨌든 객관적 가치설은 자연법칙인 실체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가격과 가치의 기준을 단순히 객관적인 물품이라는 측면에서만 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전제는 후에 한계효용이론(限界效用理論)의 성립에 의해 극복되었다.

한계효용(限界效用:marginal utility)은 소비재

나 용역을 처음 공급할 때 소비자의 만족의 정도가 가장 크고, 마지막 부분을 공급할 때 가장 작아지는데 그 '마지막 만족의 정도'를 이르는 말이다. 이를 최종효용(final utility)이라고도 칭한다.

개인적 주관을 떠나 보편타당성을 가진 객관적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판단이 한 개인의 주관에 초월하여 보편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나 사람에게 두루 미쳐 옳다고 인정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그러하다.

